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2.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현재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 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 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 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3. 주님, 동남아와 중동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4.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5.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 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상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6. 교인이 5만 이니 10만 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하신 주님, 하루 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량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량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량이 천박한 '교회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7.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와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공활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협력선교단체 및 선교사

인터넷 보안을 위하여 삭제 되었습니다. 교회로비 프린트 된 주보를 참조 하세요

교 회 모 임 COVID-19 대응 관련하여 이번 주간 모든 모임은 없게 됩니다

친 교 COVID-19 대응 관련하여 예배 후 친교음식 제공을 당분간 쉽니다

교 우 등 정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김영배 김정애 권양금 윤관봉 이건용 이경천 이지현 진만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유약한 인간임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매일(월~토) 낮12시 어디서나 3분 동안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오기도

능력의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사태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가족들 교우들 이웃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방역과 의료종사자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감염되고 격리된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복돋아 주옵소서.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강화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소중한 우리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병든 지구촌마을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주일 헌금

2020년 3월 15일 (제25권 11호)



원로목사	이경천(Rev. Joseph K. Lee)
담임목사	원정훈(Rev. Peace J. Won)
교육목사	곽성환(Rev. Sung H. Kwak) 김용규(Rev. Elliot Kim)
청소년부강도사	니콜라스 서(Pastor Nicholas So)
유년부강도사	고현준(Pastor James Ko)
유치부교사	라빈 윌리엄(Teacher Robin Williams)
유아부교사	장희주(Teacher Heeju Jang)
파송선교사	스테파니아(Missionary Stefania Tarasut) 김병수(Byeong Soo Kim)

시무장로	박홍문(Kenneth Park) 이효성(Hans Lee) 정석재(Samuel Jeong) 김윤조(YoonJo Kim)	
휴무장로	이곤일(Chris Lee)	
지휘자	임향희(Hyang-hee Lim)	이정아(Jung-Ah Lee)
반주자	윤영인(Young-In Yoon)	고윤경(Grace Ko)
오르간	박인화(In-Hwa Park)	

예배순서

인도 원정훈 목사

예배의 부름 * Call to worship	인도자
참회의 기도 * Prayer of confession	다함께
신앙고백 *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교독문 9번(시편 23편)
찬송 Hymn	48장
기도 Prayer	오규창 집사
헌금 Offering	다함께
봉헌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요리문답 Catechism	다함께
환영광고 Welcome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세기(Genesis) 35장 1-7절 p53(구약)
설교 Sermon	화목 9 용기 (원정훈 목사)
찬송 Hymn	434장
축도 Benediction	1부 원정훈 목사 2부 원정훈 목사

*는 다같이일어서서

예배안내

주일예배(1부)	주 일 오전 9:30	본 당	원정훈 목사
주일예배(2부)	주 일 오전 11:30	본 당	원정훈 목사
주일예배(MCM)	주 일 오후 1:30	본 당	원정훈 목사
수요예배	수 요 일 오후 7:30	본 당	원정훈 목사
금요일예배	매월 첫째주 일 오후 8:00	본 당	원정훈 목사
새벽예배	화 - 금 오전 6:00	본 당	
교회학교	주 일 오전 11:30	유아부실	장희주 집사
	주 일 오전 11:30	유치부실	Robin Williams 집사
	주 일 오전 11:30	본당 2층	James Ko 강도사
	주 일 오전 11:30	예배실2	Nick So 강도사
	금 요 일 오후 7:30	예배실2	Nick So 강도사
	수 요 일 오후 7:30	친교실2	Nick So 강도사
	주 일 오후 1:30	각교실	이아랑 집사

예배섬김

	이 번 주(3월 15일)	다 음 주(3월 22일)
기도	1부 오규창 2부 오규창 3부 James Ko	1부 강지호 2부 강지호 3부 Soyoon Jang
안내	1부 김범수, 정병성 2부 김병택, 정동진 3부 Greg Pak, Robin Williams	1부 김범수, 정병성 2부 김병택, 정동진 3부 Greg Pak, Robin Williams
헌금	1부 김동식, 김선영 2부 김지민, 박지연, 신민경 3부 Greg Pak	1부 김동식, 김선영 2부 김지민, 박지연, 신민경 3부 Se-Un Chung
친교	박종환, 이은미	이동진, 이재순
친교 봉사		
배식 및 정리		
주차 안내	김영, 김준성	김영, 김준성
B.o.B 사역	Volunteer(3월 21일)	
주간 관리	양병용, 정석재	양병용, 정석재

예배는 삶이 되며, 삶은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 세상에서 정직 열방을 향한 선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34.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셨으며,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33. Why is He called God's only begotten Son, since we also are children of God?

Because Christ alone is the eternal, natural Son of God; but we are children of God by adoption, through grace, for Christ's sake.

34. Why do you call Him our Lord?

Because He has redeemed us, body and soul, from all our sins, not with gold or silver, but with His precious blood, and has delivered us from all the power of the devil, and has made us His own possession.

에덴 성경공부(EBS)

모임	요일	시간	장소	개강	담당자
매일성경 소그룹	목요일	오전 10:00	본당 2층	진행중	곽성환 목사
성막, 제사, 절기	토요일	오전 10:00	본당 2층	진행중	곽성환 목사
바울 따라잡기 I	월요일	오전 10:00	친교실	진행중	곽성환 목사
일대일제자양육	주 일	오전 11:00	사무동	진행중	곽성환 목사
마더와이즈	수요일	오전 9:30		진행중	김보혜 집사
교리(소요리문답)	화요일	오전 10:00	본당 2층	진행중	김용규 목사
	주 일	오전 9:30	본당 2층	진행중	김용규 목사
	주 일	오후 1:30	사무동 2층	진행중	김용규 목사
실버성경공부	월 1회 화요일	오전 10:30	본 당	진행중	원정훈 목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